

LG전선(주)

광통신, 첨단 전자부품업체
변신

LG전선이 3년 안에 미래형 사업 구조로 변신한다. 광통신 및 첨단 전자·정보통신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LG전선(대표 권문구)은 지난 2월 14일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중기 경영 계획 등 새 천년의 비전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권문구 부회장은 선포식 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2002년까지 모두 3000억원을 투자해 전통적인 전력, 통신 등 케이블회사에서 광통신을 중핵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 및 전자 소재부품 분야의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했다.

권부회장은 "현재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광통신사업을 2002년에는 25% 수준으로, 5% 수준인 전자·정보통신부품 비중은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복선, 전력선, 동통신 케이블, 에나멜 와이어 등 기존 일반전선 부문의 매출 비중을 50%에서 22%로 대폭 낮추고 전체 매출을 올해 2조에서 2002년에는 2조 7천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상이익은 1200억원에

서 두 배 늘어난 2400억원으로 잡고 있다.

LG전선은 이를 위해 부품사업을 별도 조직하고 현재 안양공장에 있는 케이블과 와이어설비는 점차 다른 공장으로 이전, 정리해 안양공장을 무공해 첨단 부품산업 단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즘 반도체 경기 호전에 따른 리드프레임과 필름형 전선, 초호황이 예상되는 TFT-LCD용 편광막과 배향막이 이미 출시를 시작했거나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속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초고속정보통신, 인터넷, 무선이동통신 등으로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광케이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를 확장하고 있는 구미의 인동공장은 현재 180만fkm의 광섬유 생산능력을 올 5월까지 연 300만 fkm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콘텐츠가 다양화, 대용량화됨에 따라 인터넷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송망 투자는 세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LG전선은 2002년까지 생산능력을 500만f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선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정보·에너지 전송기술로 인간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새로 정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을 결의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중전기 통계정보 DB 구축

한국전기공업진흥회(회장 유재환)는 산자부와 한전정보네트웍(주)에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정보 DB 개발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올 11월까지 '중전기 통계정보DB 구축사업'을 수행한다.

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DB 개발사업에 일반통계, 산업통계, 연구개발통계 등을 구축해 중전기산업의 체계적인 통계를 적재적소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전기산업 통계정보협의회 및 실무추진팀을 운영해 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를 위해 통계 데이터 작성을 위한 품목 표준안을 제정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분야별, 특성별 조사·분석에 따라 입력된 자료를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계추이를 그래프형태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진형 정보조사팀 대리는 "그동안 중전기산업의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정부, 관련기관, 협단체 등이 필요에 따라 통계치를 작성해 분산 활용해 왔기 때문에 수치의 정확성이 뒤떨어졌다"며 "이번 DB

개발사업으로 품목 및 양식의 표준화와 통계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국내 전력산업은 물론 전 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 준공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장정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전 기재해 예방 실무를 위해 첨단설비와 전문교수요원을 갖춘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을 준공했다.

'97년 11월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 건립공사를 시작해 지난 1월 13일 준공된 교육원은 전력계통 보호시설, 계측장비, 멀티비전 교육실 등 첨단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안전교육원으로 자체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급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공사는 점검·검사·진단 등과 관련된 최신의 안전 예방 프로그램의 준비로 연간 1,500여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교육원은 오는 5월 3일 개원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강의실 4실, 실습실 3실, 강당 1실, 숙소 47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전선(주)

광통신사업 대폭 강화 500억원 투자, 200만 fiber·km로 늘리기로

大韓電線(대표 兪彩濬)이 광통신케이블사업을 강화한다. 최근 이 회사는 총 500억원을 투자, 생산능력을 200만 fiber·km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증설되는 설비는 기술적인 면으로나 효율면에서 세계 최신 최첨단설비로서 현재보다 품질·경제성이 우수하고 단위시간당 생산성도 두배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국내최초로 광섬유모재(프리폼)당 무려 1,000km 이상의 광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이 회사가 광생산설비 증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터넷 관련산업의 급성장으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 회사는 광사업에서 총 800억원의 매출을 기록, '98년에 비해 금액으로 51%, 물량으로 무려 82%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환율차이와 국내의 경제환경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실적이다. 올해는 이 부문에서 25% 늘어난 10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3200만달러에 달하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통신·광통신 턴키 프로젝트

사업에 뛰어드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VAD공법에 의해 광섬유를 제조하고 있는 이 회사는 광섬유 제조에 필요한 클래딩용 석영관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합성 방법(All Synthetic Method)에 의해 코어와 클래딩을 동시에 제조하므로 인장강도와 전송특성이 우수하며 10 Gbps 이상의 초고속전송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편광모드분산(PMD) 특성을 갖는 제품 생산도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공법은 일본의 스미토모, 후지쿠라, 후루가와 등이 채택하고 있는 광섬유제조방식이다. MCVD공법은 광섬유 단면적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코어부를 제조하고 자켓 클래딩용 석영관에 이 코어부를 끼어 넣은 다음 압착시켜 광섬유모재를 제조하므로 클래딩용 석영관 크기에 따라 광섬유 길이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클래딩용 석영관은 전량 수입해야 한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 해 6월 미국 루슨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전파장 저손실 광섬유(Anywave Fiber)의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12월에는 KT(국산신기술인정제도) 마크를 획득하기도 해 현재 이 제품을 특허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또 차세대 광섬유인 WDM 전용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를 개발, 국내 최초로 160Gbps, 640km 전송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또한, 大韓電線은 국내 처음으로 275kV급 극초고압 O.F 지중케이블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 275kV는 국내 전선업체가 해외에 수출한 초고압 지중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에 속한다.

이 회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전력청이 실시한 초고압 지중케이블 턴키 프로젝트 국제입찰에 참가 2천 7백만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입찰은 이탈리아의 피레리, 프랑스의 알카텔, 스위스의 브룩, 일본의 3대 전선메이커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와 가격 기술 품질 신뢰성 등 모든 면에서 경쟁하여 거둔 성과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고 초고압전력케이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대 전선업체 중 하나인 유럽의 모전선회사로부터 230kV XLPE 초고압케이블을 처음 납품받아 시공하였으나 초고압 XLPE 케이블이 폭발하여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싱가포르 전력청은 XLPE 케이블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문제됨에 따라 이미 일본과 계약된 XLPE 케이블도 O.F. 케이블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전부 O.F. 케이블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대한전선은 230kV O.F 초고

압 지중케이블을 싱가포르 전력청에 납품한 전례도 있고 추가 물량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대한전선의 이번 말레이시아 275kV O.F. 극초고압 턴키 프로젝트 수주는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 회사는 지난 '83년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132kV O.F. 초고압지중케이블을 턴키방식으로 수출한 이래 최근까지 총 5억달러가 넘는 초고압 지중케이블로 공사를 성공리에 완료함에 따라 현재 말레이시아 주요 지중케이블은 모두 이 회사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대중공업(주)

산업용 로봇 대량 생산체제
틀입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이 지난 1월에 75대의 로봇을 생산해 월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월간 생산했던 로봇 생산대수 가운데 최고치로, 앞으로 로봇의 대량생산체제를 굳혀가기 위한 본격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 해 로봇시장의 위축으로 발주가 줄고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4백여대의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들어서자마자 이처럼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것은 세계 경기의 호전으로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각국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해 말부터 발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75대의 산업용 로봇 가운데 자체 개발한 「HR 120」 과 「HR 150」 스폿(SPOT) 용접 로봇은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과 고유모델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로봇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발주처도 현대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를 벗어나 일본과 이란 등 외국업체로부터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생산목표를 6백대로 계획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현재의 생산체제는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업용 로봇시장의 물량은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판단, 월간 1백대, 연 1천대 이상의 생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해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지하철 전동차 및 도시철도차량 동력장치인 교류 전인 전동기가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위원으로부터 「EM(Excellent Machine)」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